

★ 6월 보건소식 ★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발령 안내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코로나19 감염병 위기경보 단계 하향 조정을 알려왔습니다. 2023년 6월1일부터 **심각 단계에서 경계단계로 하향됨**을 안내드립니다.

2023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부모 연수 개최

전라북도교육청 지정 학생건강증진센터에서 **[2023년 학생건강증진을 위한 학부모 연수]**를 실시하오니 희망하는 학부모님께서는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일시: **2023.6.24.(토) 09:00~12:30**
2. 장소: 전라북도교육청 2층 강당
3. 대상: 전라북도 소재 학부모 200명 내외
4. 주제: **아동·청소년의 알레르기 질환 관리**
5. 신청기간: 2023.6.1.(목)~6.16.(금) 선착순마감
6. 신청방법: 네이버폼을 통한 접수
(<https://naver.me/5ICW2mQH>)

학생 성폭력예방교육 주간 안내

1. 기간: 2023.6.12.(월)~6.16.(금)
2. 대상: 1-6학년
3. 장소: 각 학년 교실 및 청소년성문화센터
4. 세부내용: 1.2.3.5.6학년은 교실에서 외부강사에 의한 수업이 진행되고 4학년은 6.13.(화) 청소년성문화센터로 이동하여 체험교육을 실시합니다.

여름철 감염병 예방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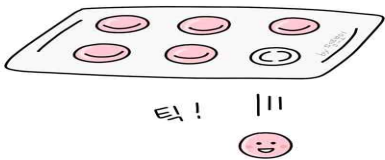
**여러분의 건강을 위협하는 각종 감염성 질환
손만 제대로 씻어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감염병	원인	예방법
수인성 및 음식물 매개 질환 (세균성 이질, 급성 위장관감염)	· 병원성 세균 등에 오염된 물과 식품의 섭취로 설사, 구토, 발열 증상 있음	· 안전이 확인된 끓인 물 먹기 · 조리과정 교차오염 방지 (익힌 음식과 익히지 않은 음식 조리 기구 분리 보관) · 조리종사자 개인청결유지 · 음식물 익혀서 먹기
일본뇌염	· 바이러스에 감염된 작은 빨간 집모기에 의해 전파	· 모기방역 · 저녁·밤 시간 어린이 주의 · 예방접종: 만6세, 12세 각1회씩 추가접종
비브리오 패혈증	· 원인균(Vibrio vulnificus)에 오염된 어패류의 생식 또는 바닷물과 접촉 시 피부 상처를 통한 감염	· 어패류는 익혀 먹고(56℃ 이상 가열), 피부 상처가 있는 사람은 해수욕 등 바닷물 접촉에 의한 감염 주의 · 고위험군 주의 - 간 질환자, 알콜 중독자, - 당뇨병, 폐결핵 등 만성질환자, - 위장관질환자, - 부신피질호르몬제, 항암제를 복용 중인 자, 면역결핍 환자
유행성농염 (유행성결막염, 급성출혈성결막염)	· 아데노바이러스, 엔테로바이러스 감염(출혈, 눈곱, 안통, 결막하출혈)	· 철저한 손 씻기 · 발병 시 즉시 의료기관 진료

약물오남용 예방

● 안전한 약 사용을 위한 기본지식

1. **약마다 사용량과 사용시간은 다를 수 있다.**
 - 아이에게 사용해야 하는 약의 사용량, 사용시간을 숙지하거나 기록해둔다. 약의 사용량을 결정할 때는 일반적으로 나이보다 몸무게를 우선 고려한다.
2. **어린이는 어른의 축소판이 아니다.**
 - 어린이에게는 어린이 전용약을 사용한다. 성인의 기준에 맞추어 임의로 약의 용량을 조절해 쓰는 일이 없도록 한다.
3. **약을 먹일 때는 올바른 도구를 사용한다.**
 - 눈금과 숫자가 써있는 약수저, 약컵 등을 사용하는 것이 가장 정확한 양을 맞출 수 있다.
4. **약을 사용하기 전에 다음의 정보를 확인한다.**
 - 약 이름: 아이에게 사용하려 하는 약이 맞는지
 - 효능효과: 아이의 증상에 맞는 약인지
 - 주의사항: 아이가 사용해도 되는 약인지
 - 용량용법: 얼마나, 언제, 어떻게 사용하는 약인지



5. 약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의사, 약사와 상의한다.

- 아이가 약 사용 중 피부가 붉어지거나 심하게 간지러워하거나, 계속 토하고 설사를 하는 등 약의 부작용이 의심되면 우선 처방해준 의사나 조제해 준 약사에게 문의한다. 만약 아이가 호흡곤란, 씹씹거리는 소리를 낸다면 119를 부르거나 응급실로 데려간다.

6. 아이의 부작용을 기억해둔다.

- 아이가 특정 음식이나 약물에 알레르기가 있는 경우 의사, 약사에게 진료나 조제 전에 반드시 알려야한다.

7. 약을 올바르게 폐기한다.

- 안먹는 약, 오래된 약, 포장손상 및 변질된 약은 폐기하는데 약국이나 보건소 폐의약품 수거함을 이용할 수 있다. 1년에 2회 정도 지역약사회가 모여서 특수 폐기한다.

양성평등

● 양성평등을 이루려면??

1. 상대적 평등이 필요하다.

평등은 상대적 평등과 절대적 평등이 있다. 절대적 평등이란 누구든지 무조건 똑같이 대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어른과 아이가 달리기를 한다면 누가 이길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등이라는 말로 어른이 이겼으니 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평등해 보일 수 있다. 그래서 어른과 아이의 차이를 인정하여 **차별적으로 대우해야 하는 상대적 평등이 필요한 것이다.** 예를 들어 여자는 아기를 낳게 되는데, 어느 정도 기르는 동안 직장에 나가지 못하게 되어 사회 생활에 지장을 받게 되는 반면, 남자는 그런 일이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여성이 사회에 진출할수록 아이를 낳지 않는 경우가 생기고, 저출산을 초래하는 요인이 된다. 이 경우 여자가 아이를 낳는 일로 인하여 받게 되는 불이익을 최소화 하는 것이 평등이다. 즉 아이를 낳으면 출산 휴가를 받을 수 있고, 육아 휴직도 쉼야 한다. 특히 아이를 낳은 후에도 계속해서 직장 다닐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2. 여성을 위한 제도적 노력이 필요하다.

요즘은 직장 들어갈 때 겉으로는 차별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직까지도 알게 모르게 여성이 차별을 받고 있는 경우가 많다고 한다. 같은 조건이면 남자를 뽑는 경우도 있고, 남자에게는 승진의 기회도 더 주어진다. 또한 직장에서 구조조정을 할 때에도 여성이 직장을 그만 두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여성의 권익을 지켜줄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사회적으로 동등한 일을 하고, 같은 기회가 주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이를 기르는 것과 집안일에 대한 여성의 부담이 크지 않도록 말이다.

3.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한다.

우리는 무의식적으로 여자니까 또는 남자니까 하는 생각을 아직도 하는 것 같다. 이러한 생각이 바뀌어야 비로소 진정한 양성평등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물론 요즘은 옛날보다 많이 바뀌어서 남자도 간호사가 될 수 있고, 아내가 남편보다 월급을 더 받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남성과 여성을 구분 짓는 편견을 없애는 것이 양성평등을 이룰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 방안이다. 스스로부터 남성과 여성에 대한 편견을 없애도록 노력해야 한다

2023년 6월 1일

전주효문초등학교장